

해남군 클린 국가어항 조성 속도 낸다

어촌신활력증진 내년 예산 반영
어란진항 250억 투입 환경 개선
학가·우근항 생활 기반 확충도

해남군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내년 국도비 예산에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들은 국도비 22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어항환경 개선과 어촌경제 활성화 등 지역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어란진항에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국비 150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쉼터를 신축하고, 공동설내작업장과 스마트 광장, 스마트 쉼터, 해양쓰레기 저감시설 등을 조성한다.

대표 특산품인 물김과 전복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어항,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있는 거점 어항 조성을 목표로 내년 기본, 실시설계를 시작, 2028년 착공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송지 학가·우근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70억원(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2026년부터 4년간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군이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된다. 해남 어란진항. (해남군 제공)

학가항은 어업인 안전 쉼터 조성과 어항 내 진입 도로 확장, 어업활동 지원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우근항은 선착장 연장과 물양장 확장 등 어항시설 정비와 함께 물김 브랜드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어란진항 신항 개발사업도 내년 42억원의 국비가 반영되어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업은 5년간 456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항로와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호안시설 축조, 부족한 배후부지 확보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내년 신규사업과 함께 펼쳐지는 해양수산분야 사업들이 어업인 소득향상을 물론 정주 인프라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가용리 산림치유단지에 대규모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완도군이 완도읍 가용리 편백숲 산림치유단지 내에 대규모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

체험장은 전남도비 64억원과 군비 16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지역별 특색 있는 목재문화를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목공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체험장은 5000m² 부지에 건축 연면적 1500m²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목재 체험실, 목공 작업실, 자재실을, 2층에는 나무 상상 놀이터, 나무쉼터, 전시 판매실 등을 갖춘다.

아외에는 목재 정원과 전시장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흥정 천연림이 분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완도 흥정’을 활용한 독특적인 목재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체험장에서 만든 목공예품을 대상으로 목공예 페스티벌도 개최할 계획이다. 숲속 야영장과 휴양림, 산림레포츠 시설, 치유의 숲 등이 들어서 있는 산림치유단지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면서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 박은자 산림휴양과장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통해 완도 흥정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지난 12일 장세일(오른쪽) 영광군수기 군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현판행사를 갖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배려·친절도 강화 등 성과

영광군이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군청 민원실에서 협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 환경, 민원서비스 운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영광군은 2021년 첫 인증을 받았으나 2024년 재

도전에서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환경 개선과 서비스 강화에 노력한 결과 올해 다시 인증을 받았다.

재인증 준비 과정에서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비롯해 친절 교육 체계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재인증은 군민의 신뢰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목포시, 6년 연속 ‘SRT 어워드’ 최고 여행지

목포시가 SRT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5 SRT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사진)

SRT 매거진은 2016년 개통한 SRT(수서발 고속 열차) 차내지로, 2018년부터 매년 국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해 ‘SRT 어워드’를 운영해 왔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며 올해도 ‘최고의 여행지 10개 도시’ 중 하나로 이름을 옮렸다.

‘SRT 어워드’는 전국 46개 도시가 경쟁한 가운데 지난 9월 한 달간 SRT 매거진 독자 1만 2060명의 직접 심사와 여행작가·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방문 관광객 데이터 분석, 온·오프라인 홍보자료의 편의성 평가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 인지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근대문화유적, 탁월한



해상 파노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 카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 해 동안 목포가 보여준 매력적인 관광자원들이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6년 연속 대상 수상은 대한민국 관광도시 목포의 경쟁력을 국내외로부터 널리 인정받은 결과”라며 “2026년에도 목포만의 매력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특별전

내년 3월 29일까지 목포 기념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내년 3월 29일까지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컨벤션동 1층 전시실에서 ‘피스메이커 김대중, 평화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전시는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관련 사진과 노벨평화상 상장·메달,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시계, 행남자기 노벨위원회의 의회를 받아 제작해 2007년 노벨상 시상식 공식 만찬 테이블에 오른 식기 등이 있다.

또 1960년대 초 의원 낙선으로 고초를 겪던 시절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방문한 고향마을에서 무료하게 부채만 부치던 어르신들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동 수성사’에 기증했던 바둑판,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및 노벨평화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중앙홀 벽화를 재현한 포토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제공)

상 만찬장을 재현한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계자는 “평화는 한 시대 지도자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이어가는 길”이라며 이번 전시가 시민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평화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AI 스타트업 부트캠프’ 창업자 모집

무안군이 오는 22~23일 열리는 ‘AI 스타트업 부트캠프’에 참가할 예비·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부트캠프는 무안읍 메이커스페이스(일반 랩)에서 예비·초기 창업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미나이(Gemini)’부터 캔바(Canva)까지, 최신 AI 툴로 마스터하는 비즈니스 모델링과 브랜딩’을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최종 사업

계획서 작성, 모의 발표까지 실무 중심 집중 교육이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툴을 활용해 ▲창업 아이템 검증, 자료조사 ▲사업계획서 작성과 멘토링

▲모의 발표, 평가까지 일련의 창업 실무 과정을 거친다.

우수 발표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시상이 진행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